

Mathon - a village with 50 residents in the high (1,520m) Alps of Graubünden, Switzerland, has a very special house. Swiss architecture firm Office Haratori and Dutch architecture firm Office Winhov - together they have turned an old traditional hay barn, a previous home to many cows and their meal, into a place for working, dwelling and reflection. All the internal and external structures of the barn are original, intertwined and intact as before and further enhanced for human dwel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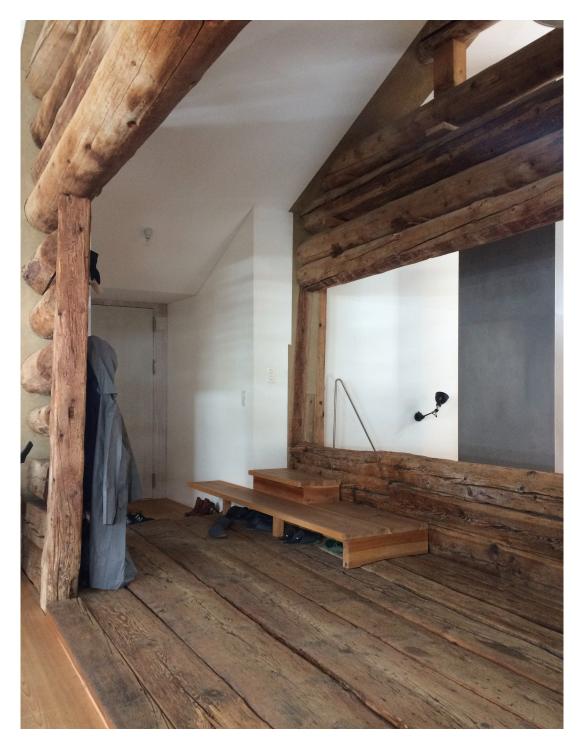
I was invited to live and work in this serene space for one month. The village was still covered in snow when I arrived in the afternoon on the 1st of April 2018.

Within given time in this utopic place, I have put down the thinking mind and concepts of my on-going work. I opened up to Mathon, allowing myself to respond to this very specific location and what it has to offer - visually, emotionally and culturally. Each day I took walking, observations and drawing as a working tool. Sketches were brought into the studio and they grew.

The nature provided endless materials for the practice of seeing. Throughout April, the dramatic arrival of Spring was broadcasted everywhere. Change of season was seen on the metalic reflection of the Sun ray on sublime mountain tops. At one point snow shrank rapidly and it was heard in the volume of water in creeks. Nameless grasses started pushing new leaves upwards and made green even greener each day. After dinner, a short walk along the road leading to the South often revealed wild deers grazing freely. Increasing swarms of flies were noisy. Warmth on skin was felt.

During walking, silence was a good friend. Silent air was loud with Spring. Often, the loudest sounds of Spring was heard through the smallest, softest and most fragile new elements that required constant stopping, squatting and serious looking.

Back in the house, sometimes, the silence vibrated with somethine else - unsettling noise that I have been carrying within. Mind follows wherever the body goes. For a month, mouth closed and eyes open. Hoping to see connections in observations, each day I picked up pencils, charcoals and brushes.



스위스 그라우뷘덴주, 주민 50명의 작은 마을 마톤에는 아주 특별한 집이 하나 있다. 취리히 건축사무소 오피스 하라토리와 암스테르담 건축 사무소 오피스 윈호브의 협업으로, 오랜 시간 많은 소의 숙식과 건초의보관 장소가 됐던 스위스 전통 외양간 건물은 인간의 작업과 사색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되었다. 처음 지어졌던 원본 구조를 바꾸지 않고 다만 그 위, 주변에 사람의 기본적 삶을 위한 개선 공사가 더해졌다.

2018년 봄, 나는 이 고요한 공간에 작업과 숙식을 위한 초대를 받았다. 마톤에 도착한 4월 1일 오후, 마을은 아직도 눈에 덮여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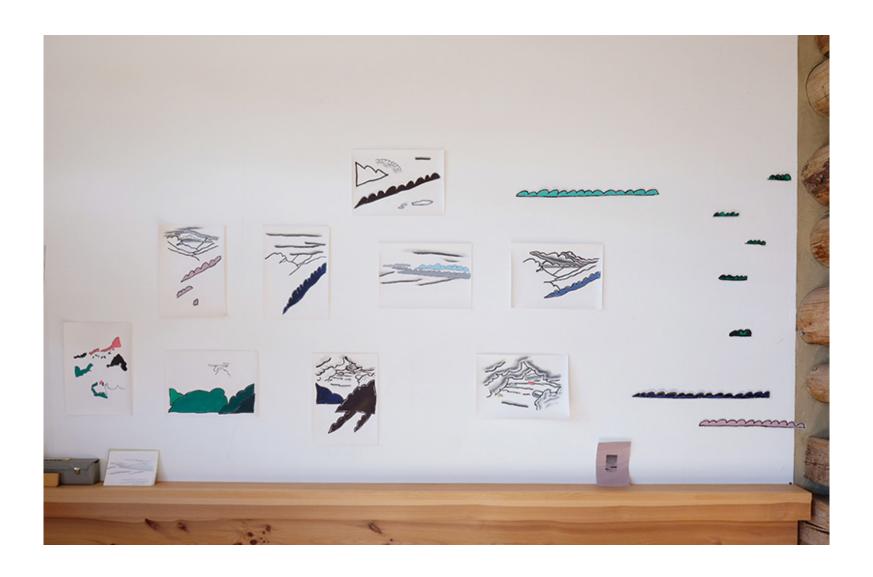
설산으로 둘러싸인 유토픽한 위치, 제한된 작업 시간 안에서 나는 생각 하려 애쓰는 마음과 작업 개념은 잠시 내려두고 마톤이라는 특별한 위 치와 장소가 제공해주는 시각적, 감정적, 문화적 요소에 마음을 열었다. 매일 매일 노트와 펜을 들고 걷기, 관찰, 스케치를 작업 도구로 삼았다. 작업실에 돌아오면 스케치를 바탕으로 작업을 키웠다.

자연은 바라봄의 연습을 할 수 있는 끝없는 요소를 제공했다. 특히 4월의 알프스는 두꺼운 눈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봄이자신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리며 벌판과 공중에 매일 드라마틱한 기운을 뿌렸다. 먼 설산이 반사하는 햇빛은 매일 달라지며 가끔은 금속적 빛을 반사했다. 계곡물의 양과 울음은 매일 커졌다. 저녁 식사 후남쪽으로 난 길을 조금 걸어가면 거의 매일, 같은 장소에 새 풀을 뜯어먹는 야생 사슴을 볼 수 있었다. 사방의 들판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풀이 올라와 녹색은 다음날 다 함께 더 녹색이 되어있었다. 공중에 엄청난 파리 때가 왕왕거리며 날아다녔다. 피부에 따뜻함이 느껴졌다. 조용한 대기는 봄의 도착으로 정말 시끄러웠다. 봄의 도착을 알리는 제일 강렬한 파장과 소리는 자주 멈추고, 쭈그려 앉고 만져야 보이며 느껴지는, 가장 작고, 부드럽고, 연약한 것들을 통해 들렸다.

집 안 대기의 조용함은 다른 파장 때문에 흔들렸다. 그것은 내가 오래 가지고 다닌 불안의 잡음이었다. 주위가 조용하니 이 불안은 더 시끄러 웠다. 몸이 가는 어디든 마음도 따라다닌다. 한달, 입은 닫고 눈은 열었다. 매일 연필, 목탄, 붓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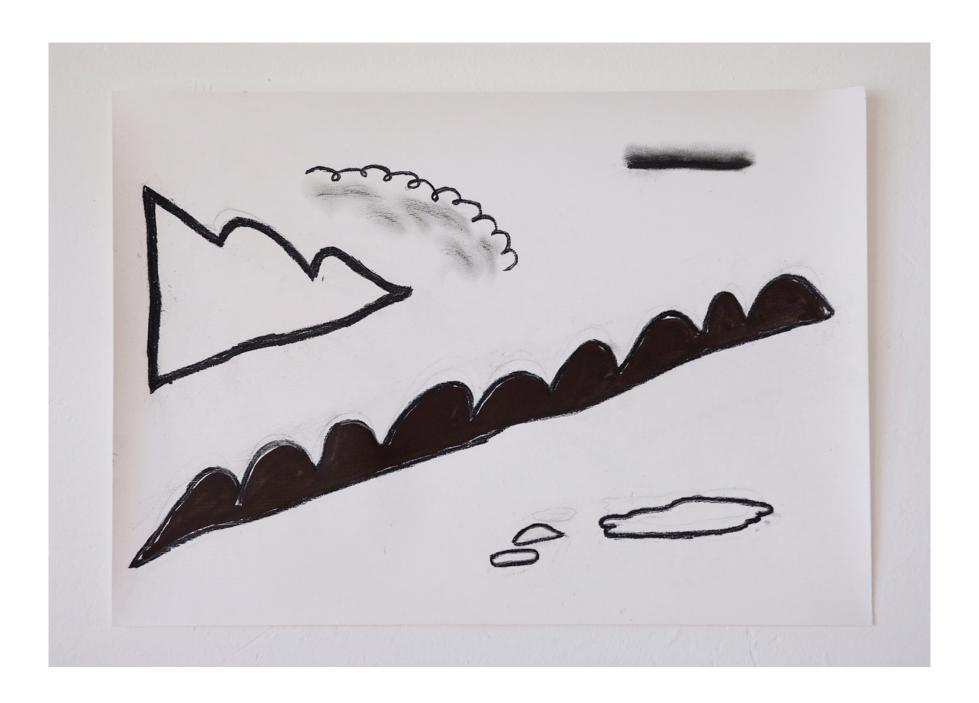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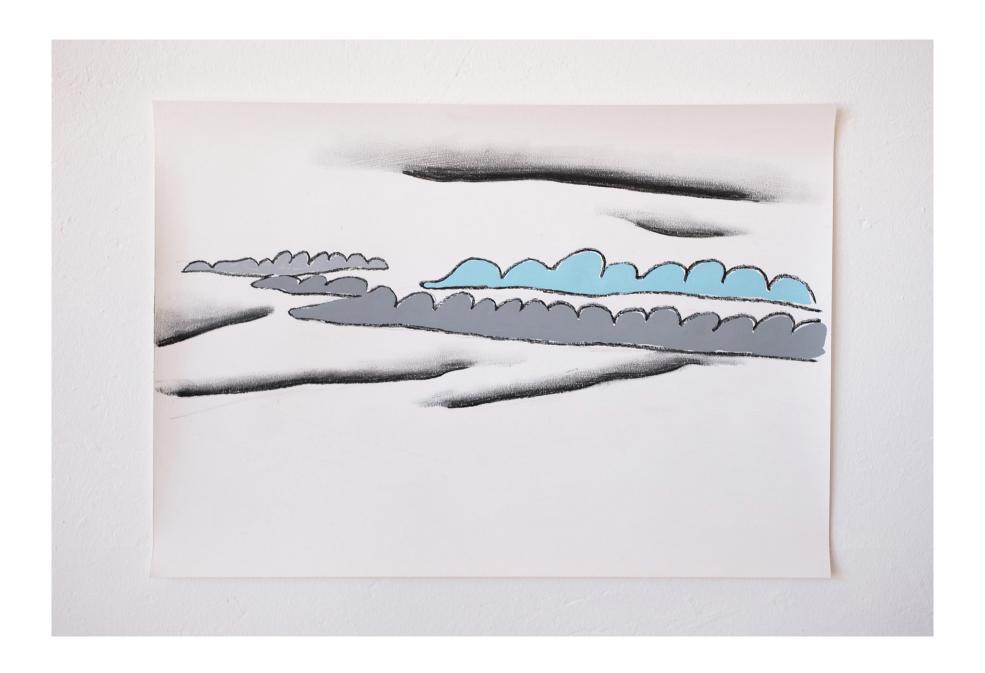
Untitled (South View from Mathon) 2018 Charcoal, Acrylic Paint on Paper 30x4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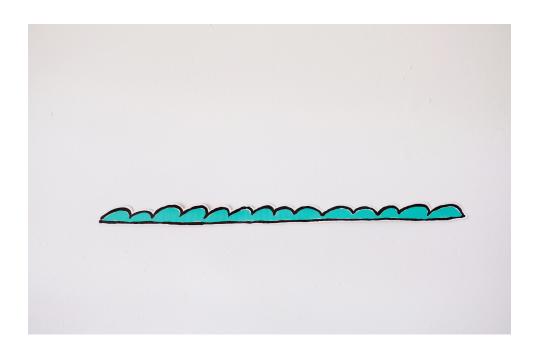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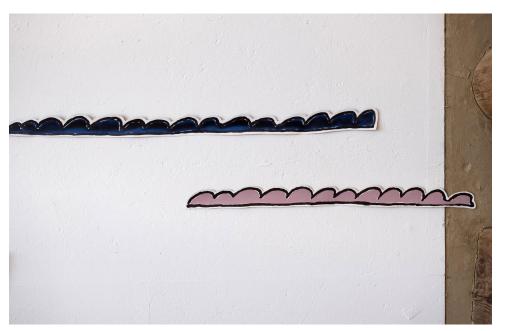














Untitled 2018 Acrylic Paint on Cut Canvases Various Sizes (4x20 ~ 4x55cm)





Untitled (Clouds, Mountains, New Grass) 2018 Acrylic Paint on Linen 28x41cm

